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ᄒᆞᆫᄉᆡᆼ **연분(緣分)**이며 **하ᄂᆞ** 모ᄅᆞᆯ 일이런가

나 ᄒᆞ나 **졈어 잇고** 님 ᄒᆞ나 날 괴시니

이 ᄆᆞ음이ᄉᆞ랑 견졸 ᄃᆡ **노여** 업다

평ᄉᆡ(平生)애 원(願)ᄒᆞ요ᄃᆡ ᄒᆞᆫᄃᆡ 녜쟈 ᄒᆞ얏더니

**늙거야** 므ᄉᆞ 일로 외오 두고 그리ᄂᆞ고

**엇그제** 님을 뫼셔 광한뎐(廣寒殿)의 올낫더니

그 더ᄃᆡ 엇디ᄒᆞ야 하계(下界)예 ᄂᆞ려오니

올 저긔 비슨 머리 헛틀언 디 **삼 년**일쇠

연지분(臙脂粉) 잇ᄂᆡ마ᄂᆞᆫ 눌 위ᄒᆞ야 고이 ᄒᆞ고

ᄆᆞ음의 ᄆᆡ친 실음 텹텹(疊疊)이 ᄡᅡ혀 이셔

짓ᄂᆞ니 한숨이오 디ᄂᆞ니 눈믈이라

**인ᄉᆡ(人生)은 유ᄒᆞ(有限)**ᄒᆞᆫᄃᆡ 시ᄅᆞ도 그지업다

**무심(無心)ᄒᆞᆫ 셰월(歲月)**은 믈 흐ᄅᆞᄃᆞᆺ **ᄒᆞᄂᆞᆫ고야**

**염냥(炎凉)**이 ᄯᅢᄅᆞᆯ 아라 **가ᄂᆞᆫ ᄃᆞᆺ 고텨**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늣길 일도 하도 할샤

동풍이 건듯 부러 젹셜(積雪)을 헤텨 내니

창(窓) 밧긔 심근 **ᄆᆡ화梅花)** 두세 가지 픠여셰라

ᄀᆞ득 ᄂᆡ담(冷淡)ᄒᆞᆫᄃᆡ 암향(暗香)은 **므ᄉᆞ 일고**

황혼의 ᄃᆞ이 조차 벼마ᄐᆡ 빗최니

늣기ᄂᆞᆫ ᄃᆞᆺ 반기ᄂᆞᆫ ᄃᆞᆺ **님이신가** 아니신가

뎌 ᄆᆡ화 것거 내여 님 겨신ᄃᆡ 보내오져

님이 너ᄅᆞᆯ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 정철, <사미인곡> -

(나)

창 밧긔 워석버석 **님이신가** 니러 보니

**혜란(蕙蘭)** 혜경(蹊徑)\*에 낙엽은 **므스 일고**

어즈버 유한(有限)ᄒᆞᆫ 간장(肝腸)이 **다** 그츨가 **ᄒᆞ노라**

- 신흠 -

\* 혜란 혜경 : 난초 핀 지름길.

(다)

나는 예전에 장흥방의 길갓집에 살았다. 그 집은 저잣거리에 제법 가까워서 소란스러웠다. 문 옆에 한 칸짜리 초당이 있어 볏짚으로 덮고 흙을 쌓았더니 그윽하고 조용해서 살 만했다. 그러나 초당이 동쪽으로 치우쳐 햇볕을 받았기에 여름이면 너무 더웠다. 그래서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靜勝熱]’는 말을 당호(堂號)\*로 정해 문설주에 편액을 해 걸어 두고 위안을 삼았다.

대저 고요함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몸의 고요함이요, 다른 하나는 마음의 고요함이다. 몸이 고요한 사람은, 앉고 눕고 일어나고 서는 등 모든 행동에 있어 편안함을 취할 뿐이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천하만사가 마치 촛불로 비춰 보고 거북이로 점을 치는 듯하니 시원한 날씨와 더운 날씨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고요함이 이긴다’고 한 지금의 말은 마음의 고요함을 가리킨다.

그 집에서 이십 년을 살고 이사하였다. 그로부터 삼 년이 흐른 뒤 옛집을 찾아가 보았다. 그새 주인이 바뀐 지 여러 번이지만 집은 옛 모습 그대로였다.

은은하게 처마에 들어오는 산빛, 콸콸콸 담을 따라 도는 골짜기 물, 밀랍으로 발라 번들번들한 살창, 쪽빛으로 물들여 놓은 늘어진 천막.

(중략)

내가 여기에 살던 시절은 집안이 번성하던 때였다. 선친께서 승명전에 봉직하실 때라, 퇴근하신 밤이면 우리 형제들이 모시고 앉아 학문과 예술을 담론하고 옛일을 기록하거나, 시를 읽거나 거문고를 들었으니 유중영의 옛일\*과 비슷하였다. 그 즐거움을 잊을 수는 없건마는 다시 되찾을 수는 없다!

『서경』에 ‘그릇은 새것을 찾고, 사람은 옛 사람을 찾는다.’라고 했다. 집 역시 그릇과 같이 무언가를 담는 부류이긴 하나, 사람은 집이 아니면 몸을 붙여 머물 데가 없고 집보다 더 거처를 많이 하는 것은 없으므로, 집은 그릇보다는 사람에 가깝다 하겠다. 그러니 어찌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렇지만 인간사가 벌써 바뀌어,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하므로 이 집에 다시 살고 싶지는 않다. 마땅히 임원(林園)\*에 집터를 보아 집을 지어서 옛 이름의 편액을 걸어 옛집에서 지녔던 뜻을 잊지 않으려 한다.

누군가는 ‘임원이 이미 고요하거늘, 지금 다시 ‘고요함이 이긴다’고 하면 또한 군더더기가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나는 답하리라. ‘고요한데 또 고요하니, 이것이야말로 고요함이라네.’라고.

- 유본학,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

\*당호 : 집에 붙이는 이름.

\*유중영의 옛일 : 당나라 때 문신 유중영이 늘 책을 가까이하며 자식들을 가르치던 일.

\*임원 : 산림.